

#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들, 무주 찾아 “무주군 화장장 도입 적극 검토해야”

### 군수협의회 제12차 정기총회 개최... 황인홍 군수 “태권도 사관학교 반드시 설립돼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들이 21일 무주군 찾아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당위성과 무주 농·특산물을 접하는 시간을 가져 관심을 모았다. 이날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제12차 정기총회를 태권도의 심장부인 국립 태권도원에서 개최했기 때문이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과 부단체장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는 황인홍 무주군수의 환영사 주요 내빈의 축사, 임원선출과 농촌정책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5분 분량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비롯해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계와 협약 모습, 사관학교 설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정치권 소통 대외활동 전개, 황인홍 군수와 태권도추진위원회 활동 모습을 담은 홍보영상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황인홍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반딧불이 살아있는 청정 무주를 방문하신 전국의 농어촌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전 세계로 뻗어갈 태권도 문화고속도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과 부단체장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제12차 정기총회를 국립 태권도원에서 개최했다.

다. 국가경쟁력 확보와 침체된 태권도의 부흥을 위해선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달라”고 덧붙였다.

군은 이들이 국립 태권도박물관 관람을 비롯해 태권도원 방문기념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 관람, 태권도원 시설 시찰 등으로 무주가 태권도 도시라는 이미지를 충분히 심어줬다는 평가

이외에도 참석한 일행들에게 전마음료와 가공식품, 과일 등 무주반딧불농·특산가공품을 접할 수 있어 품격 있는 양질의 무주산 농·특산품도 홍보가 됐다.

한편, 군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참석차 무주를 찾은 이들을 위해 무주IC부터 태권도 일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무주방문을 환영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송재기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황인동 의원, 군민 설득 주장

송재기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황인동 의원이 무주군에도 화장장을 설치해야 한다며 여론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기 위원장과 황인동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앞으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먼 곳까지 가서 화장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화장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황인동 의원은 “화장장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다. 과거 비우효적이었던 주민여론도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입장으로 많이 개선돼 화장장 건립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고 송재기 위원장은 “무주에 쓰레기 소각장도 세워졌는데 화장장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진안, 장수군 등 인접지자체와 함께 공동화장장을 만들면 국비 뿐만 아니라 도비확보도 가능하다”고 힘을 보탤다.

무주군은 수년 전 화장장을 추진하려다 주민반발에 무산됐던 사례가 있어 다시 추진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며 여론을 다시 살려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수년 내 포화가 우려됐던 무주추모의 집 분안당



송재기 위원장 (왼쪽)과 황인동 의원 (오른쪽)

은 무주군의회와 무주군이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무주군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나 가족의 분안당 안치비용을 대폭 인상하면서 여유가 생겼다고 답변했다.

송재기 위원장과 황인동 의원은 “무주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주민이 사망하지만 화장장이 없어서 감전, 대전, 세종 등 먼 지역까지 가서 화장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가족을 떠나보내는 유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이제 화장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선진 장애문화 정착을 위한 시설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화장장 건립을 위하여 군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반딧불시장 야시장” 문 엽니다

무주군과 무주시장상인회가 오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무주반딧불시장에서 야시장을 운영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시장은 무주반딧불축제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주반딧불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과 지역주민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무주만의 특색있는 야시장을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에 군과 무주시장상인회는 오는 23일 오후 무주반딧불시장 원형광장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시장상인,

내방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무주반딧불야시장 ‘문여는 날 행사’로 야시장의 첫 운영을 알린다.

이날 문여는 날 행사는 시나브로 한수정 가수를 비롯해 5인조 그룹인 브라스트(BRASSTONG)이 무대에 올라 노래 및 연주, 퍼포먼스 등으로 흥겨운 한마당 잔치를 벌이며,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게 된다.

또 지역토속 먹거리 푸드장터를 운영하고 내방객들에게 무주의 맛있고 특색있는 음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수직 인수위원회 해단

### 군정 목표 · 5대 군정방침 · 70개 과제 제안

장수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0일 해단식과 함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해단식은 최훈식 군수와 김휘승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회 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결과 보고, 공약집 전달,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7일 출범한 장수군수의 직

인수위원회는 민선8기 최훈식 군수의 군정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행정 간의 상호 토론의 장을 통한 정책간담회, 현안사업 업무보고, 주요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군정 목표와 5대 군정방침, 70개 과제를 군에 제안했다.

인수위는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를 민선8기 군정지표로 확정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미래농업 중심 부지농촌 △행복한 일상의 희망복지 △공존하는 장수의 문화관광 △희망을 키우는 미래교육 등 5대 군정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한 과제로 농산물 안정기금 400억 원 조성, 농군사관학교 건립·운영, 마을공동체를 위한 노인돌봄 체계 구축, 도시가스 수준의 에너지 공급 및 지원 등이 선정됐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인수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민선8기 최종 공약이 잘 선정된 것 같다”며 “앞으로 70개 공약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군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장수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0일 해단식과 함께 활동을 마무리했다. (왼쪽부터 전대호, 김규순, 김휘승 위원장, 최훈식 장수군수, 이선미 간사, 박진범, 이수현, 차성희)

## 장수군,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적극 당부

장수군은 여름철 대유행 대비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4차 접종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확대되는 4차 접종 대상자는 △50대 연령층(출생연도 기준 1963년 이후부터 1972년이전 출생자)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18세 이상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다.

4차 접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수이나 의료기관 유선전화 문의 후 당일 접종도 가능하며, 사전 예약의 경우 예약일 기준 2주 이후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 전화 예약(1399, 063-350-2744, 063-350-2663), 읍·면사무소 방문 예약 등으로 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현장 컨설팅

진안군은 21일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함께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진안군은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사업으로 홍삼한방 클러스터고도화사업,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컨설팅은 전북도 농식품산업과에서 주관하여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통해 사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군은 홍삼연구소,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사업담당 공무원 2명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여 홍삼한방산업 전반의 사전조사에 나타난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우태민 기자

#### 무주 반딧불축제 농·특산물 판매장 참여단체 모집

무주군이 무주 반딧불 축제 기간(8.27.~9.4.) 중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무주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홍보 및 판매하기 위해서다.

희망자는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참여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및 단체로 대형 홀텐트에 40여개 농가(단체)가 참여 가능하다. 군은 판매장 동안 판매장 내 시음과 경험 이벤트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무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은 참여 희망 단체를 대상으로 엄정 심사 후 오는 8월초 판매장 입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제26회 반딧불축제는 오는 8월 27일 시작으로 9월 4일까지 9일간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